

예를 중시한 유학자

순자

(荀子, B.C. 298 ~ B.C. 238)

순자는 전국 시대 조(趙)나라의 유학자로서
이름은 황(況)이며, 자는 경(卿)입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보았지만,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본래 악한 존재이므로
선한 행동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선함은 인위적인 것으로 성현의 가르침에 따라 마음을 갈고 닦아
기질을 변화시킴으로써 선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인간의 타고난 악한 본성을 바꾸어
선함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한 순자는 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고
인간의 생활을 규제하여 질서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강력한 예를 강조하는 예치주의(禮治主義)를 주장하였습니다.
즉, 순자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바로잡는 방법으로
예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순자는 이러한 예의 강조를 통해
유학 사상의 발달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